

개표작업 준비 엉망...6시간 이상 지연 빈축

**광주·전남선관위 안일 대처
투표지분류기·컴퓨터 에러
동별 투표함 뒤섞여 혼선
집계 입력도 못하고 우왕좌왕**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개표작업 준비 소홀과 안일한 대처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최대 6시간 개표작업이 늦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개표소에 설치된 투표지 분류기와 개표(開票) 집계결과를 입력하는 컴퓨터에서 잇따라 에러가 발생해 개표작업이 한때 중단됐으며 각 동(洞)에서 관할하는 투표소 투표함의 집계결과가 나와야만 중앙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각 후보자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데도, 투표함이 동별로 뒤섞여 있다 보니 개표시간이 늦어져 마감시간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최대 6시간 이상 늦어졌다.

광주시 서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서구 풍암동 빙고을 체육관에서 개표를 진행하고자 선거통계시스템에 각 후보자들의 개표 집계결과를 입력하지 못했다. 서구선관위가 이날 투표 종료 직후 개표소로 몰려든 투표함을 각 동별로 구분해놓지 않고 오는 순서대로 개표를 진행하면서 각 동별 투표함이 동시에 개입되지 않은 탓이다. 이때문에 개표소로 들어가는 줄이 100m까지 늘어났다.

공직선거관리규칙상 후보자별 득표 수는 시·군·구선관위원장이 읍·면·동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 상황표에 따라 공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투표함은 개표가 시작된 지 두 시간이 넘도록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해 개표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밤 9시30분께 집계결과를 입력하는 컴퓨터 4대 중 1대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작동이 멈췄다. 서구선관위는 오작동을 일으킨 컴퓨터를 미리 준비해둔 컴퓨터로 교체했으나 선거통계시스템에 접속하는 ID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구와 화순 개표소인 전남여고와 하니 율문소프트센터에서 이날 밤 9시~11시 사이에 투표지 분류기 2~4대가 고장 나가거나 오작동을 일으켜 한 시간 가량 개표작업이 중단됐다. 광주·전남지역에 설

치된 투표지 분류기 대수는 모두 141대다. 시선관위 등은 이날 광주(5곳)·전남(22곳)지역 27곳에 개표소를 마련한 뒤 개표 사무원 등 1만 명 이상의 인력을 각 개표소에 배치했지만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혼란만 부추겼다.

일부 선관위가 개표작업 준비를 안일하게 하면서 서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6시간 가량 늦은 5일 오전 11시분에 개표가 마감됐다.

남구는 2시간10분, 광산구는 2시간 각각 늦어졌다. 각 후보자들 캠프에선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 당일 자정을 전후해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새벽 2시가 넘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 해질 19:44 | 다음날 12:44 | 다음날 00:36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았다.

광주	맑음	18/28	보성	맑음	16/26
목포	맑음	18/25	순천	맑음	19/27
여수	맑음	19/25	영광	맑음	18/27
나주	맑음	17/28	진도	맑음	16/26
완도	맑음	17/27	전주	맑음	18/29
구례	맑음	18/28	군산	맑음	17/27
강진	맑음	17/28	남원	맑음	17/29
해남	맑음	17/28	축산도	맑음	16/22
장성	맑음	17/27			

	오전	오후
서해	파고 0.5	파고 0.5
남해	파고 0.5	파고 0.5
남부	파고 1.0~2.0	파고 1.0~2.0

목포	밀물	썰물
	07:28	00:16
	19:59	13:12
여수	밀물	썰물
	02:21	08:44
	15:14	21:13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	☀	☀	☁	☀	☀	☀
18/28	18/28	19/28	19/27	19/27	18/27	18/29

환자 '억제 동의서' 제출 의무화...의사 처방없이 수시 결박

**보건부 지침 정면으로 어겨
장성 요양병원 대표 구속**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람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병원측이 입원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을 허가하는 '억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신체 억제대 사용과 관련한 '1일 1회 처방', '1일 내 구두 동의, 7일 내 서면 동의' 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병원측이 입원을 명목으로 강제성된 요구사항이라는 점에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방화참사 수사본부는 5일 효사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입원 환자들의 '억제 동의서'와 관련, 병원 측이 입원 전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확인, 인권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병원의 억제동의서 제출 요구가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과 다르다

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요양병원 및 시·도 보건소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의사는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 사용 부위, 신체 억제대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해 '1일 1회' 처방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관련,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환자 인지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동의서 작성 시 보호자가 원거리로 위치,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1일 내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내 서면 동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환자의 몸을 묶는 등 억제행위는 매일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이뤄져야 하고 환자 본인에게 동의 받는 게 불가능할 경우 그때마다 환자(불가피할 경우 보호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보호자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구두 동의를 받은 뒤 시행하도록 하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엄격히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방화 참사 당시 결박됐던 환자들의 경우 의사 처방이나 당일 환자(혹은 보

호자)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데다, 미리 받은 억제 동의서를 근거로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수시로 환자를 결박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병원 측의 인권 침해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한 정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장성보건소의 결박 오남용 인지 여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또 장성보건소 담당자들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분석해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사문(53) 효사랑병원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 압수 수색을 앞두고 서류를 빼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여·47) 광주효병원 행정부원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형호기자 khh@



이사문 장성 효실천사람나눔요양병원 대표가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a@

세월호 35km 떨어진 해상서 시신 1구 발견

유실 대비 활동 허술 지적

5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의 신원이 세월호 일반인 탑승객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세월호 침몰 지점 북서쪽 22마일(약 34.4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은 일반인 탑승객 조모(44)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1차 지문을 검사한 결과 조씨가 맞는 것으로 나왔으며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씨의 가족 4명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가 막내아들 조모(7)군만 구조되고 큰아들(11)과 아내 지모(45)씨는 앞

서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작전 구역에 해당하는 사고 해역 주변 8km는 물론 15km 지점, 60~80km 지점까지 다중으로 그물을 설치하고 어선과 함정으로 유실 대비 활동을 펼치고 있던 대책본부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본부는 기상악화로 함정들과 작업 바지가 사고 현장을 떠나 대피했던 지날 3일에도 동거차도에서 구명조끼 10개와 가방, 청바지 등이 발견됐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다가 유실 대비가 허술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세월호 구조품 가로챈 30대 남성 '죄질 불량' 실형 선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구조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구조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구조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

○재판부는 이씨가 낸 세 차례의 반성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구조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는 하지만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김지율기자 dok2000@

모아건설 부실시공 폭로 협박 12억여원 뜯어내

하도급업체 간부 등 4명 구속기소

광주 증권건설업체인 모아건설의 세종시 신도시 내 모아미래도아파트 부실시공(광주일보 3월 21일자 6면)과 관련, 부실 시공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하도급 업체 간부 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박영수)는

5일 부실 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강요)로 C사의 실질적 대표 A씨와 이사·전무·사외이사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에 모아미래도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다 자재절감 등을 이유로 부실 시공한

뒤 공기 지연·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자 모아건설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부실시공 사실을 언론과 행정기관에 제보하고 추가로 부실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12억795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철근 공사팀 반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작업반장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조사결과, C사 대표 등은 계약 해지 뒤 실제 부실시공한 도면을 만들어 언론에 제보하고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피의자의 경우 다른 하도급 업체 관리인에게 비슷한 공갈 수법을 이용하도록 조언하려는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율기자 dok2000@

신축원룸매매 (용봉)

용봉지구 미래로APT 입구코너 옆
(전대상대5분, 군산아구찜앞, 르까프매점뒤)

신축 4층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룸 21개 월수익 880만
(1년수익 1억5000만)

E/V,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준공완료, 4층 주거하면서 월수익 수익성보장

매가 10억5천
(용3억 보2억 실투자 5억5천)

수익률 12%

(주)대신 010-6670-9800 / (062)952-5584

전대원룸매매(전대1분)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신축 4층(1층점포, 4층고급주택)
룸12개 월수익 500만(1년 6천만)
매가 6억5천보3천 용1억2천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신축 4층 준공완료, E/V원비
룸18개 월수익 750만(4층 주택)
매가12억보5천 용2억6천

신축원룸 (전대정문1분)
룸18개 1층 상가2칸
월수익 680만 매가8억보4천 용1억

용봉동 전대예술대후문
룸11개 월수익 400만 매가4억

나주 이창동 원룸
룸18개 월수익 550만
매가 3억8천보3천 용1억2천

상가임대

수완지구 상가3층 25평
(모아아파트 상가앞, 신한은행 뒷)
보1천 월50만 E/V원비

수완지구 상가1층 18평(대형5차 후문)
보2천 월120만

전대사거리 1층점포 50평
보2천 월150만 6차선 도로인접

북구 우산동 1층 80평
보2천 월120만

토지매매(나주 산포면)
나주산포면 등수리
생산녹지(투자적합)
920평 매가3억(용1억5천)

교환전문(상가, 토지)
원룸, 상가, APT, 토지
(1억~100억까지 교환합니다)

경매투자전문
경매투자해서 재산증식 하실분
(5천만~50억까지 물건)
(APT, 상가, 토지, 공장, 원룸 등)

경매 같이 하실분 연락주세요,
062)521-1060

신축원룸임대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로APT 코너 옆, 군산아구찜 앞 신축 4층
(엘리베이터 원비)

플옵션
32인치TV, 세, 냉, 예, 유선, 불박이, 신발장, 전체 무료

원룸 보200만 월30만 투룸 보300만 월42만

*입주자에 한하여 시은품 증정
명품 미래도빌
062)527-7600

상가매매 (수익성, 노후보장)

수완지구 신한은행뒷 모아엘가APT 5,000세대 밀집지역

4층건물 중 3층 85평
월수익 200만(1년 2400만)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천)
실투자 7000만 수익률 13%

부영APT 7,000세대 앞 대상오션스파
8층건물 중 2층 62평(보1천 월80만) 매가1억7천
(용9000만 실투자7000만)

신안사거리에서 무등경기장 쪽
주택상가(1층상가, 2층주택)
매가4억2천(1층공실, 2층주거함)
(전시관, 세차장, 공업사홍보 적합)

6층상가건물(목욕탕)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코너
월수익 600만 매가 8억5천보2억 용4억5천
직접운영하면서 월세수의 발생

오피스텔 매매 (원룸형, 투룸형)
쌍촌동 윤천역 1번출구 2분

올수리,전자제품신규교체
①원룸형(10평) 매가3천4백
보200 월27만 용1000만 실투자2300만
②원룸형(12평) 매가3천5백
보200 월30만 용1000만실투자2300만
★2개매입시 총매가6천3백
월수익 57만(1년 680만)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7평 매가 1억5천 → 할인가 1억2천
보증금 1000 월70만(용 7천만원)
사무실 인테리어 원비

상무지구 오피스텔 3층
30평 매가 1억6천 → 할인가 1억4천
현대아파트 앞 보증금 1000 월70만
(사무실, 학원, 연구실, 투자적합)

신한 010-6832-9700 / (062)512-8080